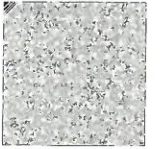


서울 주보

제2420호 2022년 11월 6일(다해)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88(87),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1독서 | 2마카 7,1-2,9-14

화답송 | 시편 17(16),1,4과 5-6,8과 15(◎ 15ㄴ 참조)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엔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견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제2독서 | 2테살 2,16-3,5

복음환호송 | 묵시 1,5,6 참조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 루카 20,27-38 <또는 20,27.34-38>

영성체송 |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사목국장

‘신신우신’

오늘 우리는 ‘평신도 주일’을 기념하며 평신도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려 합니다. 평신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이’(함께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지니고 실천해야 함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개되는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드’의 정신과 여정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향으로 살아갈 것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일치를 본받아 교회 공동체가 ‘친교’를 이루고,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로 서로를 섬기며 ‘참여’하는 가운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명(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른다고 선언하거나 하느님을 외면하려는 세상의 흐름 안에서 ‘친교와 참여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열정 때문에 순교조차 마다하지 않은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마가 7,9)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박해와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굶

어 죽는 사람 없이 가난하지만 기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인들로부터 ‘천주교인은 남다르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신우신’입니다. ‘신신우신’은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을 축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도 풀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님 신자님 우리 신자님.’ 목자는 자신이 섬기는 양들을 ‘신자님 신자님 우리 신자님’으로,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으로 부르며 친교를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라는 표현은 관계가 깊고, 소중히 여길 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우리’라는 마음을 지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에 함께하도록 이웃을 초대하고,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루카 20,38)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들을 온갖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2테살 3,5)



여행 중 흡사 천상으로 가는 듯한 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언덕 너머 하늘과 맞닿은 곳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죽음이란 명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고,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면 기쁨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예정된 길, 은혜의 길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 신비로운 공간이 빚어내는 묘한 설렘, 기대에 찬 사람들의 표정과 상기된 목소리.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보이고, 놀라운 경험을 전해주는 행사장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일상보다 더 익숙한 광경들이죠. 저는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주관하는 마케팅 회사의 대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변수를 마주해야 했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노하우도 쌓였지만 피할 수 없는 난감한 순간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한데 왜 여전히 마케팅 회사의 대표로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무 살, 드디어 성인이 된 저는 '가톨릭 스카우트' 활동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가톨릭 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가 함께 가톨릭 정신을 기반으로 스카우팅(스카우트 운동)을 하며 성당 내 혹은 야외에서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칩니다. 당시 스카우트 대장이었던 저는 스카우트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캠프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파이어 점화식'은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점화식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번 캠프의 주제는 '도전'이니까, 땅속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점화하러 나오면 어떨까? 나무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머릿속에만 있던 엉뚱한 생각이 철저한 준비 속에 실현되고, 열광하는 대원들을 볼 때의 희열은 무엇보다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가슴 벅찼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행사를 주최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



김용배 사도요한
가톨릭 스카우트 부연맹장, 팬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대표

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른 살 나이에 첫 회사를 차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행사의 이변들을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겁니다. 당장 행사 시작인데, 출연하기로 했던 모델이 핑크를 내서 길거리에서 섭외한 적도 있었고, 행사의 주인공인 자동차, 전자기기 등이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대표로서 짊어지고 가야 했던 부담감들이었고, 믿었던 이들과 관계에 금이 갈 때면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선택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저의 소명은 '예정된 길'이었고,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컷 묵상

하느님께는
모든 상황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류상애 아베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7

교회란 무엇인가요?

‘질문1. 교회란 무엇인가요?’

‘질문2.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답합니다. 틀린 답이 아니지만, 딱히 맞는 답도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많은 경우 ‘성령 강림 이후’라 답하실 텐데,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딱 들어맞는 답도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교회헌장」2항에서 4항은 교회의 기원을 삼위일체적 전망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사인 교회(1항)는 성부의 사랑으로부터 계획되었고(2항), 성자의 파견과 활동으로 세상에 설립되었으며(3항),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한다고(4항) 합니다. ‘삼위일체로부터의 교회’(Ecclesia de Trinitate)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삼위일체의 일치와 친교로부터 교회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의회는 성자와 성령의 ‘파견’(Missio)을 통해 교회의 신비가 구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셋째, 인간과 친교(communio)를 나누고자 하시는 하느님 의지의 실현, 즉 교회는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구원 은총을 받는 곳입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나 사도신경은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원 사건, 성령을 통한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교회의 본질이나 사명과 연결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교회는 삼위일체로부터 교회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聖事 Sacrament)’입니다. 본격적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

의 잉태 순간부터이고, 교회의 형성 역시 예수님의 공생활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 세우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성체성사가 제정된 최후의 만찬도 교회의 시작이며, 십자가 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올 때, 즉 세례성사와 성체성사가 흘러나올 때도 교회의 시작이며, 부활을 통해서도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파견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설립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느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불러 모으신 백성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께 선택받고,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로마 12,4-5; 1코린 12,12-27; 콜로 1,18 참조) 구약의 하느님 백성과 달리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구원의 성사입니다. 교회의 존립 이유는 우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후 그들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 즉 구원의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전해 주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이고, 성사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느님 백성’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천주교까리파스수녀회유지재단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향하여

“파르릉~~ 파르릉~~”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수없이 걸려 오는 노인 학대 상담 전화와 현장 출동으로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업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24시간 상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차 없었던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인학대상담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현재 예수의 까리파스수녀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노인 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족이 저지르는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며 ‘학대’라는 비참함 속에서 어두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학대라는 상황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굴곡진 어르신의 인생이 눈물겹도록 안타까운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평생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아픈 사연을 꺼내 놓으며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다가 눈을 감고 싶다.”고 호소하신 적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그 순간, 공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잘 알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부양 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혐오와 같은 부정적 인식과 함



지난 사연
후원 후기

께 노인 학대 문제는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고, 학대를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재학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는 노인을 둘러싼 가족원 간의 오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심화되고 복합된 형태로 발견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가족원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가족해체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족이 짐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가족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다시는 ‘학대’라는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들은 오늘도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노인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전역을 돌며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함께 해 준 자동차가 이제는 많이 낡았습니다. 학대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일시 보호를 위해 달리기도 하고, 의료 지원이나 상담을 위해 골목 골목을 달려가 주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낡아서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차량 구입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액 지원해 시설 차량 구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년 11월 5일~12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위해 씁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http://obos.or.kr>)-한마음한몸소식-본부소식’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인터넷 신청: www.obos.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74-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신앙 행위와 비결정론적 세계관



김도현 바오로 신부 | 예수회, 대구 동촌본당

지난달에 저는 뉴턴의 결정론적 세계관이 사주, 음양 오행 분석법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뉴턴의 이 결정론적 세계관은 등장 이후 수 백 년간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론적 세계관은 20세기에 등장한 양자물리학의 세계관인 ‘비결정론적 세계관’이 무너뜨립니다. ‘자연의 본성상 한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자물리학의 핵심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양자물리학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내용인 ‘입자-파동 이중성’과 ‘중첩 원리’ 등으로 인해 우리가 아무리 역학 법칙을 정확히 알더라도 한 물체의 미래의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물체의 미래의 운동 상태에 대해 확률론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난 시점인 초기 조건’과 ‘사주, 음양오행의 기본 법칙’을 통해 한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결정론적 세계관 역시도 혹시 잘 들어맞지 않는 세계관이 아닐까?

만일 결정론적 세계관이 정말 잘 맞는다면 우리는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미래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 텐데요. 만일 결정론적 세계관이 정말 잘 맞는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이 우리의 길흉화복은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개입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이 바뀔 가능성이 없고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굳이 성당을 다닐 필요도 없고, 묵주기도를 바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TV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즐겁겠죠.

우리의 신앙 행위는 바로 비결정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청원을 들으신 하느님의 개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등장한 양자물리학이 바로 이 비결정론적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나 원자 등 물질의 미래 예측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물며 인간의 미래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 깊이 파고든 결정론적 세계관에 입각한(점을 치는 행위를 포함한) 여러 미래 예측 프로그램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시간의 화살’을 허락하시고 미래를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내맡겨 드리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적절한 행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 행위는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의 시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오늘(11월 6일)은 ‘평신도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선우경식(요셉) 원장 기림 미사

선우경식(요셉, 1945년~2008년) 원장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에 온 삶을 바친 의사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복음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선우경식 원장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섬김의 사도’가 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 때, 곳: 11월 12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 집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10월 31일 유영근 요한 신부(43세)
- 1954년 11월 5일 김피득 베드로 신부(47세)
- 1984년 11월 1일 최창정 요아킴 신부(47세)
- 1993년 11월 1일 최석호 바오로 신부(73세)

11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고통받는 어린이들>

고통받는 어린이들, 특히 거리의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전쟁의 피해자가 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고 가정의 사랑을 되찾도록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관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팔리움 수여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2년 6월 29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 팔리움을 수여하셨습니다. 이에 주교님과 관구 내 교구민들이 함께하는 팔리움 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때, 곳: 11월 7일(월) 오후 6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가톨릭평화방송 팔리움 수여 미사 생중계 안내

- 방송시간: 11월 7일(월) 오후 5시 50분(TV, 유튜브)

교구 ‘사목평의회 위원 선출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이경상(바오로) 신부	사법대리
위원	정성환(프란치스코) 신부	중서울지역 지구장
	최수호(그레고리오) 신부	동서울지역 지구장
	양해룡(사도요한) 신부	서서울지역 지구장
	이창훈(알폰소)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추천
	박은영(이사벨라)	여성연합회 추천
	최진우(스테파노)	본당 총회장 지구 대표

교구청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11월12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2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1월27일~2월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허규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테레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3차 미사 11월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운향시 본당, 비현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생명위원회

- 1) 11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1월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11월8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내일생의 치유 피정’

때, 곳: 12월2일~4일(2박3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문의: 02)727-2336
제21회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전: 1, 2전시실
염미숙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9일(수)~14일(화)

‘슬픔 속 희망 찾기’ 자살예방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축제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사람들 누구나(유가족 포함)
때, 곳: 11월19일(토) 10시(미사), 11시(토크 콘서트),
12시~17시(마음축제) / 집전: 유경춘 주교
곳: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임신부 태교 프로그램

신앙 안에서 함께 하는 임신부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실행본당: 청담동, 길음동
상시신청가능, 타본당 신자 및 비신자 참여 가능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본당 프로그램 개설 문의:
02)727-2115 청소년국 유아부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1월10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11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주제: 생태적 회개를 통한 생태적 전환으로 새
로운 생활 양식을 향해 /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2년 영성심리아카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pc@seoul.catholic.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
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
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
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을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때: 11월1일~30일 /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48-7970 주간, 010-8874-7970 야간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순례

때, 곳: 11월19일(토), 홍주성지·배나드리(대전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성공품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11월13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18일~21일·12월2일~5일·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일·1월27일~30일,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 성령기도회	매주(화) 18시30분~22시
치유 대피정	11월12일(토) 12시30분~17시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대침목 피정	11월25일~27일(2박3일)	명상의 집 (우이동)
집단 심리상담 피정	11월21일	
개인 피정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말씀 피정	11월24일(목)~27일(일)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최, 회생)
성경완독	12월9일(금)~17일(토)	
송년 피정	12월28일(수)~30일(금)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2월3일(토)~4일(일), 2023년 2월25일(토)~26일(일)
3박4일	11월10일(목)~13일(일), 12월15일(목)~18일(일)
8박9일	11월16일(수)~24일(목), 12월26일(월)~1월3일(화)
40일	12월10일(토)~1월18일(수)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10월31일~12월5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1월7일(월)	세속정신 끊음 2	조용준 신부
11월14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김경진 신부
11월21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병근 신부
11월28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박상희 신부
12월5일(월)	성모님께 봉헌식 미사	

화요기도 피정(파티마평화회성당)

때: 매주(화) 10시~14시(미사) / 중식 제공
곳: 파티마평화성당 / 문의: 031)952-6324

지리산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때: 2023년 2월24일~25일·3월23일~24일, 11월24일~26일(부산교구) / 문의: 010-3712-8119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12월3일~5일(대구 17곳)·12월16일~19일(부산 8곳~마산 6곳)·2023년 2월18일~20일(대구 17곳)·3월1일~5일(대구·울릉도 독도 포함) / 출발: 서울 명동(대형버스)
문의: 010-3807-1784 왜관 수도원 피정의 집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11월12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12월3일~5일·12월9일~11일, 성지순례 11월12일~15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2023년 1월2일(눈꽃산행) /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분장

때: 11월15일~17일·11월26일~28일·12월2일~4일·12월10일~12일·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피정)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ICPE 부부 피정·청년 피정(ICPE 선교회)

1) 하나님 주신 카나의 두번째 기적 / 문의: 010-3889-1272

대상: 가톨릭 신자 부부 10쌍(자녀동반 가능) / 회비: 12만원
때, 곳: 11월26일(토)~27일(일), 영보 수녀원(과천)

2) JESUS 시그널 피정 2차 / 문의: 010-5320-0419

대상: 미혼 남녀(35세~45세) / 회비: 12만원
때, 곳: 12월3일(토)~4일(일), 성 라자로마을 아론의 집

교육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 단기 1년 또는 장기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법인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수능 등 학업 지원과 보컬, 사진, 기타, 필라테스, 영어대화, 독서토론 등 문화 수업과 컴활, 포토샵 등 자격증 수업 제공
문의: 02)382-5652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청소년 문화공간JU역촌동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교리신학원 2023년 21기 신입생 모집

대상: 전진 받은 신자(교구 무관) 00명(2년 과정) / 수시전환: 11월~2023년 1월 방문 예약 후 대면 접수
입학상담: 032)830-7137 / 홈페이지: ds.iccu.ac.kr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바오로수도회 성경 강의

때: 매주(화) 10시~12시30분 / 사도행전
곳: 성바오로 북카페레벤 / 회비 없음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및 미사

내용: 말씀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6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때: 2023년 1월부터 1년간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대면	히브리어 (수) 10시~12시
Zoom	히브리어·회합어 (수) 19시30분~21시30분

2022년 전진상 치유인문학 강좌시리즈 9

행복하고 존엄한 죽음, 웰다잉 / 회비: 5만원
때, 곳: 11월10일(목)~24일(목) 10시~12시(총3주), 전진상센터(합정동) / 문의(접수): 010-7527-1956 (재)국제가톨릭형제회(A.F.I.)

1강 11월10일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찰
2강 11월17일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죽음의 의미
3강 11월24일	인간다운 죽음과 안락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4일(월)~24일(목)-전형일 12월10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LA 영어캠프(3인 1실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인 1실 리조트) 명문대 선생님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모집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아마투스 합창단 단원 모집

때: 수시 / 문의: 010-9338-5276 김지선 총무
곳: 강서송도아트홀(송도동) / 55세 미만 남성단원 환영
곡명: 가톨릭 성가곡 및 자유곡(악보 지참)

남성합창 단원 모집

베아투스남성합창단(2012년 창단)
대상: 성인 남성(나이 제한 없음)
연습: (목) 18시30분~20시30분, 중구 동호로 30
길 43 / 문의: 010-8773-7049 김명중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3년 예정인) 초2~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월26일(토) 14시30분, 가톨릭평화방송
BI 합창단실 / 문의: 010-2650-8014
11월24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미사

성공로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때, 곳: 11월19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 문의: 02)953-0613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1월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1월12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故 차동업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추모 미사

때, 곳: 11월12일(토) 오후 3시, 미래사목연구소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유가족 위로미사

대상: 2021년 10월 이후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
연령회원 / 문의: 02)772-9090
때, 곳: 11월11일(금) 오후 4시, 명동 주교좌 대성당

인사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교메스심리상담소

인간적, 영적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가족, 부부,
심리불안(주)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자기인식 작업-수지애니어
그림: 매일 셋째주(금)(토) 오전 10시~오후 4시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
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침묵·대월 기도 피정: 11월11일~13일·12월9일~18일

전생애 심리치료 부모교육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때, 곳: 11월12일(토) 14시~16시, 홍대 근처 / 무료
선착순 10명 / 문의: 010-3703-5904 경혜자 수녀
주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연남동 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
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청소년 언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서울시립

청소년상담센터) / 문의: 02)2051-3743
서울시립청소년상담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
료), 종합심리검사 /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
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직원모집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영상기자, 광고홍보사원
접수: 11월30일(수)까지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중립동약현성당 모지관리인 모집

분야: 모지관리인(평탄면 분수리 중립동약현성당 모지)
대상: PC 업무 가능하고 성실한 분 / 문의: 02)362-1891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11일(금)까지 우편·방문(우 04506, 서울시 중구 청파
로 447-1 중립동약현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yak1891@
catholic.or.kr)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연락

성 앙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주말 근무
가능한 분 / 업무: 피정 준비 및 사무행정 업무
분야: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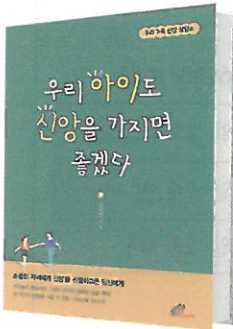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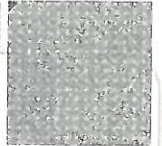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
자 각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1월13일
(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a@seoul.catholic.kr) 접수

신천동성당 사무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2203-6161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회계 업무 및
PC(엑셀·한글) 가능한 분 / 11월20일(일)까지 이메일
(sincheondong@catholic.or.kr) 및 사무실 방문·우편(우
055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4 신천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신부
마리아의 종 수녀회	11월13일(일)	분원(돈암동)	010-6826-6882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심수녀회	11월19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49	010-9284-0304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6357-0731(ocation.jesuit.kr)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11월19일(토) 15시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분원(보문로 27길20)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우리 아이도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조재연 지음
바오로딸 | 256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아이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걱정인 부모·조부모가 건넨 다양한 질문들로 시작해 이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에세이다. 가톨릭신문에 <내리신 양 깊어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연재한 내용을 정리, 보완한 것이다.



신간

2023 주님과 함께 (탁상용 말씀달력)

성바오로딸수도회 지음
바오로딸 | 368쪽 | 8천원
문의: 02)944-0944

교회 전례력에 따른 성경의 한 구절이 날짜와 함께 인쇄되어 하루를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초대한다. 빛과 위로를 건네는 말씀과 생명력 가득한 삽화가 우리의 나날을 기쁨과 희망으로 이끌어 준다. 이 달력은 책상, 탁자 등에 올려놓기 적당한 크기라 단채로 선물하기도 좋다.



신간

2023 말씀과 함께 (수첩)

성바오로딸수도회 지음
바오로딸 | 126쪽 | 5천원
문의: 031)944-0944

달력, 연간·월간·주간 계획, 성경 통독 계획표 등 꼭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담았다. 환경을 위해 기존의 비닐 대신 튼튼한 양장 제본을 했고, 적당한 크기와 무게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편하다. 내지에는 힘과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과 이은숙 수녀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따뜻한 삽화가 희망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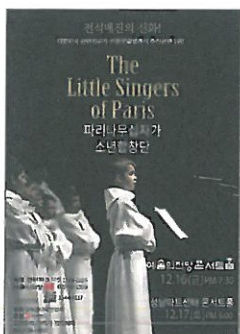


신간

베르나데트 성녀의 작은 삶

르네 로랑탱 지음
바오로딸 | 160쪽 | 9천원
문의: 02)944-0944

베르나데트 성녀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이다. 1858년 2월 11일~7월 16일에 루르드에서 일어난 성모님 발현 사건을 목격자 베르나데트에게 맞춰 서술한다. 이 책은 가장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소외와 경멸의 대상인 소녀를 선택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성모님을 만나게 해준다.



공연

2022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 초청공연

입장권: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4만원(서울예술의전당콘서트홀),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6만6천원, B석 4만4천원(성남아트센터콘서트홀) / 문의: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소년합창단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12월 16일(금)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2월 17일(토) 17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펼친다. 중세, 근대, 현대곡들을 포함하여 시대별로 프랑스 거장 작곡가들의 곡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며 프랑스 음악의 진수에 흠뻑 취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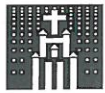
전시

김옥순 수녀 성화 소품전

전시장소: 바오로딸 혜화나무
개관시간: 오후 12시~6시(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 010-9759-0882

2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온 <김옥순 수녀의 성화 소품전>이 11월 8일~23일, 대하로 바오로딸 혜화나무 갤러리(지하1층, 2층)에서 있다. 2022년 매일미사 표지의 작가이기도 한 김옥순 수녀의 성화를 묵상하며 그림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제2253(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촌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축 하 합 니 다



첫영성체를 하는 11명의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초등부 첫영성체

일시 : 11월 12일(토) 오후 3시 미사

◎ 2023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본당 봉사자 워크샵

일시 : 2022. 11. 6(주일) 12:00~ 소성전/교육관

12:00~13:00 중식

13:00~15:00 분과별 발표 및 토의

대상 : 사목회 상임위원, 여성구역회 구역장·반장

남성구역 형제회장·총무

제 분과 소속 단체장·총무

◎ 성소후원회 미사 : 11월 15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축복미사 : 11월 16일(수)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

사전접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회비 : 일만원

◎ '볼링대회'(남성총구역주최)

지난 풋살경기에 이어 볼링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공 굴리기' 하실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11월 12일(토) 13시 30분

장소 : 뉴원일볼링센터 (주차장이 부족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 2만원 / 신청 및 문의 : 사무실

◎ 청년음악회 (Re)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6시 / 대성전

구성 : 1부 임마누엘 홀리챔버 합주단 /

2부 한푸름성가대 / 3부 이레밴드

관람 : 누구나 선착순 무료 입장

* 이 날 오후 3시 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이 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12월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 하 리 이다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대성전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02.323.4450)

※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

※ 견진교리기간동안 화요일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 2023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20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액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회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오늘은 평신도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0. 3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1	864 (41.1%)	826 (39.3%)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74,808,300원

◎ 감사헌금 (10월 24일~30일)

익 명 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최지영 오만원 익 명 오만원

정해월 삼만원 이지만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1주일)

교무금 13,262,000원

주일헌금 4,893,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695,000원

입당	21	봉헌	216, 217	성체	156, 198	파견	227
----	----	----	----------	----	----------	----	-----